

단군왕검을 이은 태자 부루(太子扶婁)의 존재성과 동부여 해부루와의 구분

문치웅*·김은진**

I. 서론	1. 태자 부루와 동부여 해부루의 혼동
II. 창수사자 태자 부루	
III. 태자 부루와 동부여의 해부루의 구분	2. 태자 부루와 해부루의 구분
	I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왕검조선의 단군왕검을 이은 태자 부루의 존재에 대해 다루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와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 단군의 역년 중에 있었던 특정 사건까지의 기간이 1500년 또는 1048년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긴 역년에도 불구하고 왕궁왕검 이후의 단군에 대한 인물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태자 부루의 존재는 한 명의 단군에 의해 1500년의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다고 해석하는 신화적 접근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후한(後漢)대에 조엽이 저술한 『오월춘추』를 시작으로 당(唐), 명(明), 청(淸)

* 홍익인간재단 역사문화기술연구원 원장.

** 홍익인간재단 역사문화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대의 문헌들인 『당송백공육첩』, 『고미서』, 『역사(釋史)』 등에서 창수사자로 칭해진 태자 부루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 문헌들을 통해서도 태자 부루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태자 부루와 관련한 이들 문헌의 공통점은 모두 치수사업의 내용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태자 부루와 관련한 기록에서 시간적으로 2000여년 이상 차이가 나는 동부여 해부루와 혼동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원인은 부루라는 이름으로 인해 부여의 해부루가 왕검조선의 태자 부루로 잘못 이해되면서 발생된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군기(檀君記)』라는 인용 문헌을 통해 북부여 때에도 왕을 단군이라 불렀을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당시에 제왕의 이칭으로서 단군이라는 명칭은 왕검조선뿐만 아니라 북부여에서도 사용되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며, 단군이 여러 명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태자 부루와 동부여 해부루의 혼동에 대한 문헌의 내용들을 관련 문헌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그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단군왕검 이후의 인물의 존재와 단군이 帝와 王의 이칭(異稱)이라는 것은 왕검조선이 1908년 이상 이어진 긴 역년을 가진 고대국가로서의 역사성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문헌에서의 창수사장 태자 부루의 기술은 왕검조선의 역사성에 신뢰감을 더해준다.

※ 주제어 : 태자 부루, 해부루, 왕검조선, 단군왕검, 동부여

I. 서론

단군왕검의 조선과 관련한 문헌의 기록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 편의 「고조선」조에서 『위서(魏書)』와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다.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는 왕검이라는 이름은 없이 나라를 할 위인을 임금(君)으로 만들고 그 임금을 단군이라 하여 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표현되었다.¹⁾ 단군이 집권 기간 중의 특정 사건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보로 『삼국유사』에서는 1500년, 『동국통감』에서는 『고기』를 인용하여 1048년이 나타난다.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서 단군의 통치기간 동안에 발생한 특정 사건까지의 역년 정보는 왕검조선의 존속 기간이 1500년 이상이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왕검조선의 긴 역년 기록에도 불구하고 단군왕검 이후 이어진 2, 3세 그리고 그 이후의 단군에 대한 인물 기록이 관련 문헌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 단군왕검 이외의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단군이 1500년 또는 1048년 통치를 하였다는 기술은 마치 한 사람이 이 기간 동안 집권하였는가라는 의문을 만들어 내었다. 한 명이 일천년 이상 생존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축약, 함축된 기록은 왕검조선에 대한 신화적 해석의 원인이 되어 현재까지도 역사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거정(徐居正)은 그의 저서 『필원잡기(筆苑雜記)』에서 단군에 대한 1048년을 수명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음을 논하였다.²⁾ 『동국통

1) 『동국통감(東國通鑑)』 外紀, 檀君朝鮮, “國人立爲君是爲檀君國號朝鮮”

2) 서거정(徐居正), 『필원잡기(筆苑雜記)』 卷之一, “…人君享國久長者不過四五十年人壽上壽白年中壽六十年下壽四五十年安有檀君獨壽千百年以享一國乎知其說之誣也…”

감』에서도 이 1048년은 단군들의 역년(歷年)이지 한 명의 인물에 대한 수명이 아니라고 하였다.³⁾ 신화적 관점의 접근에서는 이러한 긴 역년에 대해 인간에서 신이 되는 과정에서의 기간으로 간주하여 해설하기도 하였다.⁴⁾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번역한 번역서들 역시 신화적 관점의 접근이 주를 이룬다.⁵⁾

이러한 단군의 역년과 관련한 논란의 주요 원인은 단군왕검 이후의 인물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 있다. 비록 『동국통감』의 「단군조선」부분에서 1048년은 한 명의 단군에 대한 수명이 아닐 것이라고 하였지만, 조선을 건국한 단군왕검 이후의 단군에 대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단군이 1인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임금을 나타내는 君의 의미인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단군왕검 이후의 인물의 존재를 찾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단군왕검을 이은 인물에 대한 문헌의 기록으로 중국 한(漢)나라 때 조엽(趙曄)의 저술인 『오월춘추(吳越春秋)』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왕검조선 건국 초기시기에 천하에서 이루어진 치수의 실무책임자로 있었던 우(禹)가 창수사자(蒼水使者)의 도움으로 치수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켰다는 내용이다.⁶⁾ 단군왕검의 아들이 부루(扶婁)이

3) 『동국통감(東國通鑑)』 外紀, 檀君朝鮮, “…千四十八年者乃檀氏傳世歷年之數非檀君之壽也…”

4) 김진석, 「단군신화의 서사구조와 상징체계」, 『한어문교육』 10집, 2009, 152~155쪽; 김현선, 「단군신화의 신화학적 연구」, 『한국민속학』 30호, 1998, 201~219쪽.

5) 靑柳南冥, 『原文和譯三國遺事』, 『조선연구회』, 1915, 2~3쪽; 細井肇 편저, 『조선총서 제3권』 『삼국유사』 「기이」 편, 조선문제연구소(동경), 1936, 2~4쪽; 사서연역회 역, 『삼국유사』 「기이」 편, 고려문화사, 1946, 40~41쪽; 이병도 역, 『삼국유사』 「기이」 편, 대양서적, 1972, 76~78쪽; 이민수 역, 『삼국유사』 「기이」 편, 을유문화사, 1975, 43~46쪽.

6) 조엽(趙曄), 『吳越春秋卷四 越王無余外傳第六』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

며, 태자로 있을 때에 치수사업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은 서거정의 『필원잡기』에서 『고기』를 인용하여 기술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신채호는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서 역시 『고기』를 인용하여 이 창수사자를 단군왕검의 아들인 태자 부루라 하였다.⁷⁾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이어 『조선상고사』에서도 단군에 대한 내용을 『고기』를 인용하여 기술한 것을 보면 이 문헌이 대표적인 왕검조선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기』의 문헌적 특성과 이 문헌이 고대사 관련 사서(史書)에서 인용된 내용 분석, 단군관련 내용에 대한 고찰이 여러 논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⁸⁾

왕검조선에서의 태자 부루의 존재는 단군왕검 한 명에 의한 신화적 역사가 아니라 후대에 지속적으로 이어진 역사를 가진 국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서영대는 김정설의 『단군설화집』을 기본으로 하여 부루를 포함한 단군왕검의 아들들에 대한 설화적 내용을 소개하였다.⁹⁾ 고려와 조선의 여러 학자들의 문헌에서도 부루에 대한 내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며, 이승휴의 『제왕운기』, 서거정의 『필원잡기』, 허목(許穆)의 『기언(記言)』이 대표적이다. 이들 문헌에서의 부루에 대한 내용은 치수 사업과 관련한 도산 회의에 집중된다.

그런데 태자 부루와 관련한 기록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시대적으로 2000여년이 넘는 차이를 두고 존

全文檢索版)

- 7) 신채호,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 1988, 57-58쪽.
- 8) 김상현, 『『고기』의 사학사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Vol. 74, 한국고대사학회, 2014, 285-324쪽; 김정배,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 상고사의 제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59-167쪽; 박병섭, 『『삼성기전』 상·하편에 숨겨진 사실들』, 『선도문화』 Vol.6, 2009, 47-72쪽; 이소라, 『『삼국유사』의 ‘고기’에 대한 고찰』, 『태릉어문연구』 Vol.18, 2012년, 37-59쪽.
- 9) 서영대, 『단군 관련 구전자료의 검토』, 『단군학연구』 21호, 단군학회, 1988, 57-58쪽.

재했던 동부여(東夫餘)의 해부루(解扶婁/解夫婁)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이다. 태자 부루와 해부루가 동일 인물로 잘못 이해되어 해당 인물들의 활동 내용과는 맞지 않아 역사 이해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동부여의 해부루가 도산회의에 참가하여禹와 치수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이다.¹⁰⁾ 해부루와禹는 동시대의 인물이 아니며, 부루라는 이름 때문에 왕검조선의 태자 부루와 동일 인물로 잘못 이해되어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왕검조선의 단군왕검을 이은 태자 부루의 존재를 문헌의 기록을 분석하여 밝혀 나가고자 한다. 태자 부루의 존재는 한 명의 단군에 의해 일천년의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다고 해석하는 신화적 접근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왕검조선의 역사성 정립에 기본 요소가 될 것이라 본다. 또한 왕검 조선의 부루와 동부여 해부루 간에 발생하는 불명확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잘못된 문헌의 기록을 바르게 정리하여 관련 내용의 참고에 혼동이 없도록 한다.

II. 창수사자 태자 부루

『삼국유사』 「기이」 편의 「고조선」조와 『동국통감』의 「외기」 「단군조선」조에는 왕검조선의 역년과 관련한 다음의 내용이 있다.

10) 허목(許穆), 『미수기언(眉叟記言)』 卷第四十八續集, 「사방이(四方二) 관서지(關西誌)」, “檀君傳解夫婁爲北夫餘, 禹平水土會諸侯於塗山解夫婁, 朝禹於塗山氏…”

『삼국유사』 御國一千五百年 … 朝鮮壇君乃移於藏唐京後還隱於阿斯達
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

『동국통감』 古記云檀君與堯並立於戊辰歷虞夏至商武丁八年乙未入阿斯達
山爲神享壽千四十八年

위의 원문에 대한 번역서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 단군은 곧 장당경 (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산신(山神)이 되었으니 수(壽)가 1,908세다.

『동국통감』: 『고기(古記)』에서 이르길 단군은 요와 더불어 무진년에 재위에 올랐으며, 우 그리고 하의 시대를 지나 상나라 무정 8년 을미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으니 향년 1천48년이다.

『삼국유사』 번역서들에서는 단군의 통치기간이 1500년이며, 수명은 1908년이라고 하였다.¹¹⁾ 또한 서거정 등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동국통감』의 원문에서는 수(壽)가 1048년으로 나타난다. 이 두 내용이 단군의 수명과 관련한 대표적인 표현이며, 그 대상 인물이 단지 단군으로만 나타나므로 인해 1인의 단군이 1500년 이상을 집권한 것처럼 해석되고 있다.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단군은 1세 단군왕검뿐이다. 이 두 문헌의 기록만을 놓고 본다면 1세 단군왕검의 壽가 1908년 또는 1048년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一千九百八歲 부분에서의 歲는 나이를 나타내는 1908세의 의미로 해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아(爾雅)』에서 歲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11) 靑柳南冥, 앞의 책; 細井肇 편저, 앞의 책; 사서연역회 역, 앞의 책.

『爾雅·釋天』歲，唐虞曰載 夏曰歲 商曰祀 周曰年

歲의 의미는 당우(唐虞) 즉 요·순 시대에는 載라 하고, 하(夏)나라 시기에는 歲라 하고, 상대(商代)대에는 祀라 하고, 周 때에는 年이라 하였다. 이 의미로 볼 때 歲의 의미는 나이를 나타내는 뜻이 아니라 연도를 나타내는 年의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동국통감』의 기록에서도 歲는 年의 의미로 사용되어 1048년에 대해 千四十八年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수명과 관련한 내용이 아님을 의미하며, 어떤 기준 시점에서 특정 사건까지의 기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阿斯達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에 대해서는 神이라 칭해진 인물이 집권한 때부터 역년을 계산하면 1908년이 되는 때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阿斯達爲山의 의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문화현 구월산 부분에서 아사달을 구월산에 만들었다는 부분¹²⁾을 인용하여 구월산에 도읍을 다시 정하고 그 이름을 아사달이라 한 때까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승휴도 『제왕운기』에서 산은 구월산이라 하였다.¹³⁾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할 때의 도읍을 아사달이라 하였는데, 이후 평양성, 당장경, 백악산 등으로 몇 차례 이전하고 백악산으로 불린 구월산에 정한 때가 위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월산에 도읍을 정하고 그곳을 아사달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¹⁴⁾

1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二, 「黃海道 安岳郡 文化縣 山川條」, “九月山…即阿斯達山”

13) 이승휴(李承休), 『제왕운기(帝王韻紀)』 卷之下, 「前朝鮮期」, “阿斯達山今九月山也”

1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二, 「黃海道 安岳郡 文化縣 山川條」, “九月山…即阿斯達山, 一名弓忽, 一名甌山, 一名三危. 世傳檀君初都平壤, 後又移白岳, 卽此山也至…周武王封箕子於朝鮮, 檀君乃移於唐藏京, 後還隱此山…”

『동국통감』의 神享壽千四十八年에 대해서는 商 무정 8년까지의 기간은 1048년이 됨을 알 수 있다. 이 1048년 기간에 대해서는 무정 8년이 B.C. 1330년 무렵이므로 일반적인 왕검조선의 건국시기로 보고 있는 B.C. 2333년으로는 불가능하며, B.C. 2357년일 때에 가능한 기간이다.

이러한 긴 기간 동안 단군왕검 이후의 인물에 대한 문헌의 기록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단군왕검의 아들 태자 부루의 존재를 다룬 문헌의 기록으로 조선 중종 때의 서거정의 『필원잡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문헌에서는 『고기』에 기록된 단군과 부루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⁵⁾

古記云檀君生子扶婁 ... 禹會諸侯於塗山檀君遣扶婁朝焉

『고기(古記)』에서 이르기를 단군이 아들 부루(扶婁)를 낳았다. ... 우(禹)가 제후(諸侯)들을 도산(塗山)에 모을 때에 이르러 단군이 부루를 보내어 조회하였다.

이것은 단군의 아들이 부루이고禹가 제후들과 회의를 하는 도산에 단군이 아들 부루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서거정은 『동국통감』의 편찬과 사서의 정리에 참여하면서 『고기』와 단군 관련 고문헌의 기록에 나타나는 왕검조선과 태자 부루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접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중종 시대보다 앞선 시기의 기록인 『세조실록』의 세조 3년의 내용에는 국가에서 단군 관련 문헌인 『조대기(朝代記)』, 『삼성밀기(三聖密記)』, 2종의 『삼성기(三聖記)』를 포함한 여러 종의 고서를 수집하였다고 하였다.¹⁶⁾

15) 서거정(徐居正), 『필원잡기(筆苑雜記)』 卷之一.

16) 『世祖實錄』 7, 世祖3年 5月 26日 戊子, “諭八道觀察使曰, 古朝鮮秘詞大辯說 朝代記周南逸士記誌公記表訓三聖密記安舍老元董仲三聖記道證記”

서거정은 위의 태자 부루의 치수사업 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였다.

檀君享國久長扶婁往會塗山則雖我國文籍不備中國之書豈無一語及之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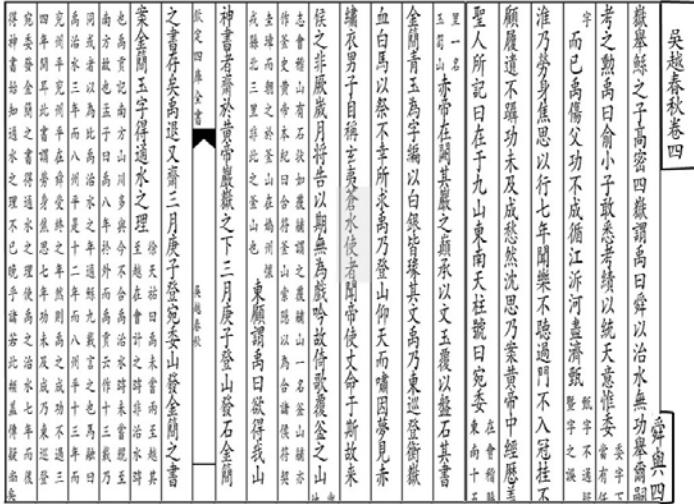
이 내용은 “단군의 나라가 오래도록 있었고 부루가 도산의 모임에 갔었다면, 비록 우리의 문적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의 문헌에 어찌 한마디도 기록된 것이 없었을까”하는 의문의 표현이다. 왕검조선과 태자 부루의 존재에 대하여 교차적으로 검증해 줄 중국 측 문헌 기록의 부재로 그 역사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숙종 때의 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허목(許穆)의 문집 『기언(記言)』 32권 「동사(東事)」의 서(序)와 「단군세가(檀君世家)」에서도 태자 부루의 도산회의에 대한 내용이 있다.¹⁷⁾

서거정이 의문을 가졌던 태자 부루의 치수사업 관여에 대한 중국의 기록은 후한(後漢) 시대의 학자였던 조엽(趙曄)이 저술한 『오월춘추』 「월왕무여외전제육(越王無余外傳第六)」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禹가 창수사자로부터 치수의 난제를 해결할 방법을 얻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¹⁸⁾ 다음의 <그림

17) 허목(許穆), 『기언(記言)』 卷32, 「동사(東事) 단군세가(檀君世家)」

18) 조엽(趙曄), 『오월춘추(吳越春秋)』 卷之四 「(월왕무여외전)越王無余外傳 第六」,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帝堯之時, 遭洪水滔滔, 天下沉漬, 九州闕塞, 四瀆壅閉. 帝乃憂中國之不, 康悼黎元之罹咎, 乃命四嶽乃舉賢良, 將任治水, 自中國至于條方, 莫薦人帝靡所任, 四嶽乃舉鯀而薦之於堯, 帝曰鯀負命毀族不可, 四嶽曰等之羣臣未有如鯀者. 堯用治水受命九載功不成, 帝怒曰朕知不能也, 乃更求之得舜使攝行天子之政, 巡狩觀鯀之治水無有形狀, 乃殛鯀于羽山, 鯀投于水化爲黃能, 因爲羽淵之神. 舜與四嶽舉鯀之子高密, 四嶽謂禹曰舜以治水無功舉爾嗣考之勳, 禹曰兪小子敢悉考績以統天意惟委而已. 禹傷父功不成, 循江, 沂河, 盡濟, 甄淮, 乃勞身焦思而行, 七年, 聞樂不聽, 過門不入, 冠挂不顧, 履遺不躡, 功未及成, 愁然沉思, 乃案黃帝中經歷, 蓋聖人所記曰: 在于

1>은 『오월춘추』에서의 창수사자와禹에 대한 기록이다.



〈그림 1〉 창수사자와 우가 기록된 『오월춘추』의 내용

창수사자가 태자 부루와 동일인물이라는 것은 『고기』를 인용하여 기술한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¹⁹⁾ 창수사자의 천하 치수사업 기여에 대한 문헌의 내용은 이후 당대(唐代)에 편찬된 『당송백공육첩(唐宋白孔六帖)』의 「강한총담(江漢叢談)」卷一²⁰⁾과 명대(明代)의 『고미서(古微書)』 「禹河圖而還於淵」²¹⁾, 청대(清代)에

九山東南天柱，號曰宛委，赤帝在闕。其巖之巔，承以文玉，覆以盤石，其書金簡，青玉爲字，編以白銀，皆琢其文。禹乃東巡，登衡嶽，血白馬以祭，不幸所求。禹乃登山仰天而嘯，因夢見赤繡衣男子，自稱玄夷蒼水使者，聞帝使丈命于斯，故來候之。非厥歲月，將告以期，無爲戲。吟故倚歌覆釜之山，東顧謂禹曰：欲得我山神書者，齊於黃帝嚴嶽之下三月，庚子登山發石，金簡之書存矣。禹退又齊三月，庚子登宛委山，發金簡之書。案金簡玉字，得通水之理。”

19) 申采浩, 『朝鮮上古史 丹齋申采浩先生全集 上』(개정판), 螢雪出版社, 1995, 81쪽.

20) 白居易 編, 宋 孔傳 續篇, 『六帖 江漢叢談』卷一, 「玄夷」.

21) 孫穀 編, 『古微書』 「禹河圖而還於淵」, “按吳越春秋, 禹傷父功不成, 循江浙河盡

편찬된 『역사(釋史)』卷十一²²⁾ 등 후대에 편찬된 여러 문헌에도 들어 있다.²³⁾ 모두禹가 치수 과정에서 창수사자의 도움을 받고 금간(金

濟瓊, 淮乃勞身焦思以行, 七年, 聞樂不聽, 過門不入, 冠挂不顧, 履遺不躡, 功未及成, 愁然沈思, 乃案黃帝中經歷, 蓋聖人所記曰: 在於九山東南天柱, 號曰宛委, 赤帝左闕, 其巖之巔, 承異白銀, 皆琢其文. 禹乃東巡登衡嶽, 血白馬以祭, 不幸所求. 禹乃登山仰天而嘯, 因夢見赤繡衣男子, 自稱玄彝蒼水使者, 聞帝使文命於斯, 故來候之, 非厥歲月, 將告以期, 無爲戲吟. 故倚歌覆釜之山, 東顧謂禹曰: 欲得我山神書者, 齋於黃帝巖嶽之下三月, 庚子登山發石, 金簡之書存矣. 禹退又齋三月, 庚子登宛委山, 發金簡之書, 案金簡玉字, 得通水之理. 復返歸嶽乘四載以行川, 始於霍山徊集, 五嶽詩云信彼南山惟禹甸之遂巡行, 四瀆與益夔, 共謀行到名山大澤, 召其神, 而問之山川脉理金玉, 所有鳥獸昆蟲之類, 及八方之民俗, 殊國異域土地里數, 使益疏而記之, 故名之曰山海經.”

22) 馬驢, 『釋史』卷十一, “吳越春秋, 乃案黃帝中經歷, 蓋聖人所記: 曰在於九山東南天柱, 號曰宛委, 赤帝在闕, 其巖之嶺, 承以文玉, 覆以盤石, 其書金簡, 青玉爲字, 編以白銀. 皆琢其文. 禹乃東巡登衡嶽, 血白馬以祭, 不幸所求. 禹乃登山仰天而嘯, 因夢見赤繡衣男子, 自稱玄夷蒼水使者, 聞帝使文命於斯, 故來候之, 非厥歲月, 將告以期, 無爲戲吟, 故倚歌覆釜之山, 東顧謂禹曰: 欲得我山神書者, 齋於黃帝巖嶽之下三月, 庚子登山發石, 金簡之書存矣. 禹退又齋三月, 庚子登宛委山, 發金簡之書, 案金簡玉字, 得通水之理, 復返歸嶽乘四載以行川, 始於霍山徊集五嶽响嘯碑文.”

23) 鑲白旗漢軍李鍇, 『尙史』, “吳越春秋九山東南天柱, 號曰宛委, 赤帝闕其巖之巔, 其書金簡, 青玉爲字. 禹登衡嶽, 血白馬以祭, 不幸所求. 夢見繡衣男子, 自稱元夷蒼水使者, 謂禹曰欲得我書, 齋於黃帝巖嶽之下. 禹齋三月, 庚子登宛委山, 發金簡之書, 得通水之理, 乘四載以行遂巡行, 四瀆與益夔共謀山川脈理金玉, 所有鳥獸昆蟲之類, 及八方之民俗, 殊國異域土地里數, 使益疏而記之, 名之曰山海經.”; 『湖廣通志』卷一, “吳越春秋, 禹東巡登衡嶽, 血白馬以祭之仰天而嘯, 忽然而臥夢赤繡文衣男子, 稱蒼水使者, 姑顧謂禹曰: 欲得我山神書者, 請齋於黃帝之嶽. 禹退齋三日以季之日登宛委山, 發石取書, 得通水之理, 遂周行天下.”; 『湖廣通志』卷七十九「衡州府 衡山縣」, “金簡玉字碑在縣北金簡峯, 吳越春秋禹案黃帝中經見聖人所記曰: 在於九疑山東南天柱, 號曰宛委, 赤帝左闕, 其巖之巔, 承以文玉, 覆以盤石, 其書金簡, 青玉爲字, 編以白銀, 皆琢其文. 禹乃東巡登衡山, 血白馬以祭之仰天而嘯, 忽然而臥夢見赤繡文衣男子, 稱玄夷蒼水使者, 顧謂禹曰: 欲得我山神書者, 請齋於黃帝之巖嶽巖之下. 禹退又齋三月, 以季之日登宛委山, 發石取書, 得通水之理, 遂周行天下, 使益疏記之名山海經也.”; 明 董斯張 撰, 『廣博物志』, “九山東南曰天承山, 號宛委, 承以文玉, 覆以藍石, 其石金簡, 青玉爲字, 編以金銀. 禹登衡山有赤繡衣男子, 自稱玄夷蒼水使者, 謂禹曰: 欲得我簡書知道水, 方齋於黃帝之嶽, 禹乃

簡)과 옥(玉)으로 된 서(書)를 얻었고, 마침내 공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치수사업의 공적을 바탕으로禹는 유우(有虞)의 천거로 夏의 책임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²⁴⁾ 치수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문치웅과 김은진의 논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²⁵⁾

이러한 단군왕검 이후 단군이 될 인물인 태자 부루의 존재성은 왕검조선이 여러 명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군은 1인 고유명사가 아니라 통치자에 대한 칭호를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동국통감(東國通鑑)』 「외기」 「단군조선」조의 첫 문장에 나타나는 國人立爲君以爲檀君에서처럼 나라를 다스릴 위인을 君으로 하고 그 君을 단군이라 하였다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 본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삼국유사』 「기이」 편의 「고구려」조에도 壇君記云君與西河河伯之女라한 壇君記를 인용한 내용의 첫 부분에서도 단군을 君이라 하여 한 명의 제왕으로 인식하고 있다.

齋登石箕山, 果得其文周行天下, 伯益記之爲山海經.” 등의 문헌에서도 蒼水使者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 24) 『사기(史記)』 卷之一, 「오제본기(五帝本紀)」, “舜乃豫薦禹於天”이라 하였고 이에 대해 당(唐) 나라 때 사마정(司馬貞)이 쓴 「사기색은(史記索隱)」에서는 “일러 天에 사신을 고하여 다스리고 섭행하는 자리를 준 것(謂告天使之攝位也)”이라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있다.
- 25) 문치웅·김은진, 「고대국가 형성 초기에 이루어진 치수사업과 그 내용」, 『고조선단군학』 제30집, 고조선단군학회, 2014; 문치웅, 김은진, 「동아시아 고대국가 형성 초기에 이루어진 치수의 실체」, 『선도문화』 제18권, 국학연구원, 2015.

Ⅲ. 태자 부루와 동부여(東夫餘) 해부루(解扶婁)의 구분

1. 태자 부루와 동부여 해부루의 혼동

단군왕검의 뒤를 이을 태자 부루의 존재성은 단순히 한 인물의 등장 차원을 넘어 역사성조차 의심받는 왕검조선이 여러 명의 제왕들에 의해 이어진 고대국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에 더하여 『삼국유사』 「기이」 편의 「고구려」조에 기록된 다음의 내용을 보면 帝 또는 王의 의미로서의 단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기간이 더 늘어남을 알 수 있다.

河伯之女名柳花與諸弟出遊時有一男子自言天帝子解慕漱 (중략) 壇君記云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有產子名曰夫婁今據此記則解慕漱私河伯之女而後產朱蒙壇君記云產子名曰夫婁

이 원문에 대한 번역서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하백(河伯)의 딸이 이름은 유화(柳花)인데 여러 아우들과 함께 나와 놀던 중 마침 한 남자가 있어 자신이 천제를 이은 해모수라고 하였다. (중략) 『단군기(檀君記)』에 이르기를 “[단]군(君)이 서하(西河) 하백의 딸과 상관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루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기록을 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뒤에 주몽을 낳았다는 것이다. 또한 『단군기』에는 “아들의 이름은 부루이다.”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하백의 딸 유화와 북부여의 해모수, 동부여의 해부루와 금와까지의 인물들에 대한 것이다. 내용 중에서 해부루에 대한 부분은 원문의 중간부에 있는 주석문에서 『壇君記』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壇君記』는 단군들의 연대기를 기록한 것이기에 그 제목을 『壇君記』라 한 것이라 판단된다. 출처가 『壇君記』이고 부루라는 이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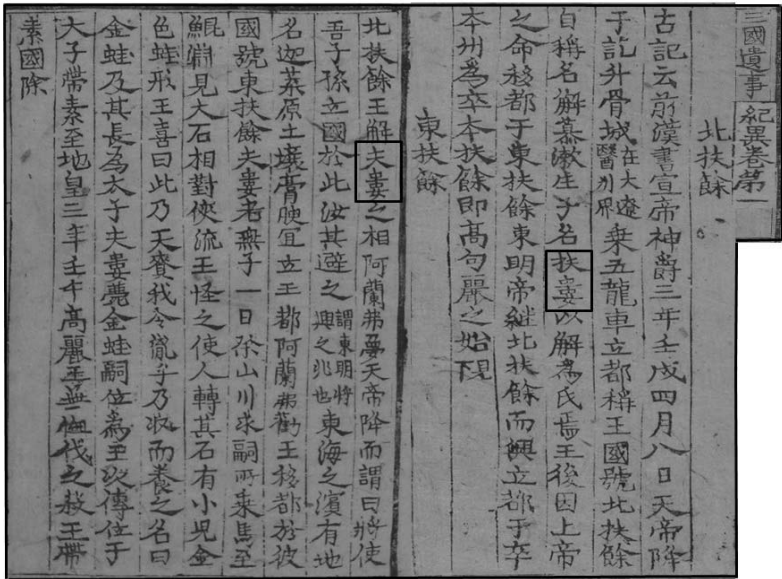
등장으로 왕검조선의 태자부루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대적 배경의 이해를 위한 등장인물들과의 관련성을 보면 부여의 해부루에 대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서 君과 河伯之女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부루 즉 해부루라고 하였다. 해부루의 아버지를 『壇君記』에서 君이라고 한 것을 보면, 결국 북부여 때에도 왕을 단군이라 불렀다는 것이 된다. 즉 해부루의 아버지도 단군이었기에 君이라 칭하며 『壇君記』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제왕의 이칭(異稱)으로서의 단군은 왕검조선뿐만 아니라 북부여와 동부여에서도 사용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것은 북부여의 해모수를 포함하여 해부루 등에게도 단군이라 불렀다는 것이 되며, 단군이 여러 명 있었음을 명백히 하는 표현이 된다.

이러한 부여의 왕들에 대한 단군 명칭이 사용은 왕검조선의 단군을 그대로 이어 오랜 기간 동안 제왕의 이칭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몽골제국 시대에 제왕들에 대한 칸(khan)이라고 칭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몽골이 제국을 건설하고도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한 帝라는 명칭보다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칸(khan)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칸의 명칭은 단군이라는 명칭처럼 주변 다른 나라의 왕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해부루는 북부여에서 동부여로 이어지는 시기에 등장하는 부여의 왕으로 『삼국유사』 「기이」 편의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조 등에서 자주 등장하였다.²⁶⁾ 『삼국유사』와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제왕

26) 『三國遺事』 「紀異」 「北夫餘」 古記云, 前漢書宣帝神爵三年, 壬戌四月八日天帝降于訖升骨城, 在大遼醫州界, 乘五龍車立都稱王, 國號北扶餘, 自稱名解慕漱, 生子名扶婁, 以解爲氏焉; 「東夫餘」 北扶餘王解夫婁之相阿蘭弗, 夢天帝降而謂曰: 將使吾子孫, 立國於此, 汝其避之謂, 東明將興之兆也. 東海之濱, 有地名迦葉原, 土壤膏腴, 宜立王都, 阿蘭弗勸王移都於彼國號東扶餘

운기』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 『동명본기(東明本紀)』를 인용하여 늑도록 자식이 없었던 부여의 왕 부루(夫婁)가 후사(後嗣)가 없었는데,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금와(金蛙)를 만나 아들로 삼았다는 설명이다.²⁷⁾ 이 모든 내용들의 주인공은 부여의 해부루왕이며, 왕검조선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해부루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부루에 대한 한자 이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북부여」조에서는 扶婁로 사용되었는데, 「동부여」조에서는 夫婁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다음의 <그림 2>는 해부루를 가리키는 부루의 이름이 다르게 표현된 『삼국유사』의 1512년 규장각판본의 예이다.



<그림 2> 『삼국유사』 북부여 조(1512년 규장각판본)

27) 이승휴(李承休), 『제왕운기(帝王韻紀)』 卷下, 韓國古典刊行會 撰, 1939.

그런데 동부여의 해부루와 관련한 문헌의 기록 또는 왕검조선의 태자 부루와 관련한 기록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혼동하여 잘못 기록한 내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허목은 그의 저서 『기언』 「단군세가」에서 다음과 같이 단군과 부루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朝鮮都平壤陶唐氏立二十五年檀君氏生夫妻或曰解夫妻母非西岬女也禹平水土會諸侯於塗山夫妻朝禹於塗山

조선이 평양(平壤)에 도읍한 것은 도당씨(陶唐氏)가 즉위한 지 25년이 되던 해였다. 단군씨가 부루(夫妻)를 낳았는데, 혹 이르기를, “해부루(解夫妻)의 어머니는 비서갑(非西岬)의 여자이다.”라고 하였다. 우(禹) 임금이 수도(水土)를 평정하고 제후(諸侯)들을 도산(塗山)에서 회합할 때에, 부루가 우가 있는 도산에서 조회하였다.

이 내용의 전반부는 왕검조선에 대한 내용이며, 이어서 단군의 부인이 부루를 낳았고, 이 부루는 해부루이며, 그의 어머니는 비서갑의 딸이라고 하였다. 이후 이어진 내용은 태자 부루의 도산회의에 대한 것이다. 내용의 핵심은 부루의 어머니 소개와 부루의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여기서 부루는 해부루이다. 그런데, 해부루는 고구려 건국 시기에 있었던 부여시대의 사람이며,禹의 활동시기와 도산회의는 해부루의 시대보다 대략 2000여년 이상 앞선 고대국가 형성 초기 치수사업이 펼쳐지던 중에 해당한다. 이 원문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볼 때, 부루는 해부루가 아니라 단군왕검의 아들 태자 부루에 대한 것이 타당하다. 허목은 부루라는 이름 때문에 태자 부루와 해부루를 동일 인물로 혼동을 한 것 같다. 『기언』 「단군세가」에서 위의 문장에 뒤이어 나오는 원문의 내용이 해부루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확인이 가능하다.

태자 부루와 해부루를 혼동하는 경우는 허목의 예에서만 나타나

는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자신의 문집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 가운데 제12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중 「단군조근(檀君朝覲)」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²⁸⁾

檀君百二十七年夏禹氏十八年遣子解扶婁朝塗山

단군 127년은 하우씨(夏禹氏) 18년인데, 이때 단군이 아들 해부루(解扶婁)를 보내어 도산(塗山)에서 조회하였다.

이 내용은 단군 127년은 하우씨 18년으로 아들인 해부루를 보내어 도산에서 조회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유원은 역대 왕조의 연혁과 지리를 고찰한 36권 「부상개황고(扶桑開荒攷)」 「단군조선(檀君朝鮮)」에서 다음과 같이 아들 부루를 보내어 도산에서 조회하였다고 하였다.²⁹⁾

夏十八年送子扶婁朝塗山

하(夏)나라 18년에 아들 부루(扶婁)를 보내어 도산(塗山)에서 조회하도록 하였다.

28)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卷之第十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篇)」 단군조근(檀君朝覲), “檀君百二十七年, 夏禹氏十八年, 遣子解扶婁朝塗山. 百九十四年夏候相七年子夷畎夷來賓于夏. 二百九十六年, 夏后槐三年九, 夷咸賓于夏. 四百九十七年, 夏后發元年, 諸夷賓于王門.”

29)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卷之第三十六, 「부상개황고(扶桑開荒攷)」 단군조선(檀君朝鮮), “唐堯戊辰, 立都平壤, 後徙白岳今九月山. 朝鮮世紀曰桓雄者, 天神桓因之子, 降于太白山今妙香山檀木下, 是爲檀君, 姓王, 名儉, 教民編髮, 命彭吳治國內山川, 夏十八年送子扶婁朝塗山, 後入阿達山今九月山爲神, 歷年一千四十八年.”

이유원도 허목처럼 태자 부루와 해부루를 동일인물로 이해하여 태자 부루의 활동을 해부루의 공적으로 잘못 기술하였다.

이긍익(李肯翊, 1736~1806)은 『연려실기술』별집 제19권 「역대전고(歷代典故)」에서 부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³⁰⁾

生子扶婁是爲東夫餘王至禹會諸侯於塗山檀君遣扶婁朝焉三韓古記夏禹十八年甲戌

아들 부루(扶婁)를 낳았으니, 이가 동부여왕(東夫餘王)이 되었다. 우(禹)가 제후(諸侯)들과 도산(塗山)에서 회합할 때에 단군이 부루를 보내어 조회(朝會)하게 하였다. 이때를 『삼한고기(三韓古記)』에서는 하(夏)나라 우 18년 갑술(甲戌)의 일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부루를 단군왕검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동부여의 왕이 되었다고 하고 우가 도산회의를 할 때 조회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왕군왕검의 아들인 태자 부루가 그의 활동 시대보다 2000여년 후에 존재한 동부여의 왕이 될 수 없다. 이 역시도 태자 부루와 동부여의 해부루를 동인 인물로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위의 내용에서 특이한 사항은 『삼한고기』를 인용하여 도산회의가 열린 연대가 夏禹十八年 갑술년이라 하고 있다. 이 연대는 이유원의 『임하필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도산회의가 열린 시기는 치수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때이므로禹가 夏의 책임자가 되기 이전이다.

夏가 만들어진 시기는禹가 치수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공적을 인정하여 유우의 천거로 天에서 천하의 한 지역을禹에게 책임을 맡기면서 부터이다.³¹⁾ 또한 치수사업이 이루어진 기간이 22년간이며,

30) 이긍익(李肯翊),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別集第十九卷, 「역대전고(歷代典故) 단군조선(檀君朝鮮)」

31) 『사기(史記)』卷之一, 「오제본기(五帝本紀)」, 앞의 내용 ; 「사기색은(史記索隱)」, 앞의 내용.

그 중 전반부 9년간은 禹의 아버지인 곤이 사업에 대한 실무책임자였다. 곤의 치수사업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자 유우는 그 책임을 물어 곤을 유배 보내고 그 자리를 아들인 禹가 맡도록 天에 추천하였다. 실질적으로 禹가 치수사업의 책임자가 되어 임무를 수행한 기간은 13년간이 된다. 그런데 禹의 역년을 치수사업의 책임자가 된 때부터 계산하여도 최대 13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도산회의가 夏禹十八年 갑술년에 도산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연대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다.

2. 태자 부루와 해부루의 구분

태자 부루와 동부여 해부루의 혼동에 대한 문헌의 내용들은 관련 문헌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이제 그 구분이 가능하다. 『기연』 「단군세가」에서 태자 부루와 동부여 해부루를 동인 인물로 묘사한 다음의 내용은 문자 중의 태자 부루에 대한 이름 扶婁로 변경하고 解夫婁 부분에서는 解를 삭제하고 扶婁로 하고, 夫妻朝禹於塗山 부분의 夫婁도 태자 부루에 대한 이름인 扶婁로 하면 바른 내용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연』 「단군세가」 朝鮮都平壤陶唐氏立二十五年檀君氏生夫妻或曰解夫婁母非西岬女也禹平水土會諸侯於塗山夫妻朝禹於塗山

본 연구의 제안: 朝鮮都平壤陶唐氏立二十五年檀君氏生扶婁或曰扶婁母非西岬女也禹平水土會諸侯於塗山扶婁朝禹於塗山

『기연』 「단군세가」에서 위의 문장 뒤에 이어진 북부여와 동부여 관련 부분에 서는 더 이상 태자 부루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모두

해부루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임하필기』 제12권 「문헌지장편」 「단군조근」부분의 내용도 역시 解扶婁 부분에서 解를 태자 부루의 扶婁로 하면 바른 표현이 된다.

『임하필기』 檀君百二十七年夏禹氏十八年遣子解扶婁朝塗山

본 연구의 제안: 檀君百二十七年夏禹氏十八年遣子扶婁朝塗山

『연려실기술』의 내용에 대해서는 태자 부루가 東夫餘王이 되었다는 부분을 삭제하면 태자 부루가 치수사업과 관련한 도산회의에서 조희한 활동에 대한 것으로 바른 표현이 된다.

『연려실기술』 生子扶婁是爲東夫餘王至禹會諸侯於塗山檀君遣扶婁朝焉

본 연구의 제안: 生子扶婁是至禹會諸侯於塗山檀君遣扶婁朝焉

태자 부루와 동부여 해부루의 혼동의 문제는 결국 2000여년 시간 차이가 나는 두 인물을 동일 인물로 잘못 이해하면서 발생된 문제이다. 이러한 여러 문헌의 기록을 통해 태자 부루의 존재성이 부각되었으며, 단군왕검 이후의 인물의 출현으로 왕검조선의 역사성을 살리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왕검조선의 건국 초기 천하에서 펼쳐졌던 치수사업과 관련한 문헌의 내용에 등장하는 단군왕검을 이은 태자 부루의 존

재를 기록의 분석을 통하여 밝혀내었다. 대표적인 단군관련 기록을 담고 있는 문헌인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서는 단군의 집권기간 중에 있었던 특정 사건까지의 역년이 1500년 또는 1048년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긴 역년에도 불구하고 왕건왕검 이후의 단군에 대한 인물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군왕검의 아들인 태자 부루의 존재는 한 명의 단군에 의해 1500년의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다고 해석하는 신화적 접근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후한대의 문헌인 조엽의 저술인 『오월춘추』를 시작으로 당, 명, 청대의 문헌들인 『당송백공육첩』, 『고미서』, 『釋史』 등에서 창수사자로 칭해진 태자 부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문헌들을 통해서도 태자 부루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태자 부루와 관련한 이들 한국과 중국 문헌의 공통점은 모두 치수사업의 내용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태자 부루와 관련한 기록에서 시간적으로 2000여년 이상 차이가 나는 동부여 해부루와의 혼동한 문제가 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해부루가 도산회의에 참가하여禹와 치수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원인이 부루라는 이름 때문에 동부여의 해부루가 왕건조선의 태자 부루로 잘못 이해되면서 발생된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해부루의 아버지를 『壇君記』에서 君이라고 한 표현을 통해 북부여 때에도 왕을 단군이라 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것은 당시에 제왕의 이칭으로서의 단군은 왕건조선뿐만 아니라 북부여와 동부여에서도 사용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며, 단군이 여러 명 있었음을 명백히 하는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태자 부루와 동부여 해부루의 혼동에 대한 문헌의 내용들은 관련 문헌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그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러한 왕검조선의 역사성 정립에 기본 요소가 될 단군왕검 이후의 인물의 존재와 단군이 帝와 王의 이칭이라는 것은 1908년 이상 이어진 긴 역년을 가진 고대국가 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고일자 : 10. 31 심사일자 : 11. 25 게재확정일자 : 12. 10

〈참고문헌〉

『書經大全卷三 夏書 禹貢』, 明 胡廣等 撰,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史記卷一 오제본기第一』,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조엽(趙曄), 『吳越春秋卷四 越王無余外傳第六』,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白居易 編, 宋 孔傳 續篇, 『六帖 江漢叢談』 卷一, 『玄夷』,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孫穀 編, 『古微書』 『禹河圖而還於淵』,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馬驢 『釋史』 卷十一,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鑲白旗漢軍李鏞, 『尚史』,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湖廣通志』 卷一,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湖廣通志』 卷七十九 『衡州府 衡山縣』,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明 董斯張 撰, 『廣博物志』,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일연, 『삼국유사(三國遺事)』(1512년 규장각판본).

김부식, 『삼국사기(三國史記)』(1512년 정덕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서거정(徐居正), 『필원잡기(筆苑雜記)』 卷之一.

허목(許穆), 『미수기언(眉叟記言)』 卷第四十八續集, 『사방이(四方二) 관서지(關西誌)』.

허목(許穆), 『미수기언(眉叟記言)』 卷之三十二, 『동사(東事) 단군세가(檀君世家)』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卷之第十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篇)』 단군조근(檀君朝覲).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卷之第三十六, 『부상개황고(扶桑開荒攷)』 단군조선(檀君朝鮮)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鍊藜室記述)』 別集第十九卷, 『역대전고(歷代典

故) 단군조선(檀君朝鮮)].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index.jsp>

이승휴(李承休), 『제왕운기(帝王韻紀)』 卷下(韓國古典刊行會 撰, 1939).

『동국통감(東國通鑑)』外紀.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二.

신채호,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

靑柳南冥, 『原文和譯三國遺事』, 『조선연구회』.

細井肇 편저, 『조선총서 제3권』 『삼국유사』 「기이」 편, 조선문제연구소(동경).

사서연역회 역, 『삼국유사』 「기이」 편, 고려문화사, 1946.

이병도 역, 『삼국유사』 「기이」 편, 대양서적, 1972.

이민수 역, 『삼국유사』 「기이」 편, 을유문화사, 1975.

김진석, 「단군신화의 서사구조와 상징체계」, 『한어문교육』 10집, 2009.

김현선, 「단군신화의 신화학적 연구」, 『한국민속학』 30호, 1998.

김상현, 「『고기』의 사학사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Vol. 74, 한국고대사학회, 2014.

김정배,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 상고사의 제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박병섭, 「『삼성기전』 상·하편에 숨겨진 사실들」, 『선도문화』 Vol.6, 2009.

이소라, 「『삼국유사』의 ‘고기’에 대한 고찰」, 『태릉어문연구』 Vol.18, 2012.

서영대, 「단군 관련 구전자료의 검토」, 『단군학연구』 21호, 단군학회, 1988.

문치웅, 김은진, 「고대국가 형성 초기에 이루어진 치수사업과 그 내용」, 『고조선단군학』 제30집, 고조선단군학회, 2014.

문치웅, 김은진, 「동아시아 고대국가 형성 초기에 이루어진 치수의 실제」, 『선도문화』 제18권, 국학연구원, 2015.

<Abstract>

Existence of Crown Prince Bulu Succeeded by Tangun Wanggum and the distinction between Bulu and Haebulu of Dongbuyeo

Moon, Chi-ung · Kim, Eun-jin

In this paper, we address the existence of Crown Prince Bulu (太子 扶婁) who was succeeded by Tangun Wanggum (檀君王儉), and the distinction between Bulu and Haebulu (解夫妻) of Dongbuyeo (東夫餘). The existence of Crown Prince Bulu is important for establishing the historicity of Wanggum Chosun, because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the next *Dangun* (Emperor) of Wanggum for a period of more than 1,500 years after Bulu's reign. We found proof of the existence of Bulu through an analysis of the ancient literatures of Korea and China. Bulu's title was used by Changsusaja (蒼水使者) in ancient china; therefore, we believe that Bulu and the Changsusaja are the same person. However, there is some confusion about Bulu and Haeburu of Dongbuyeo being the same person, even though there is an interval of more than 2,000 years between their reign. Although, their names were the same, we found a clear distinction between Bulu and Haebulu through integrated analysis of their works. The results of our study show that *Dangun* refers to the title of "Emperor", and

a number of *Danguns* existed in ancient korean history.

※ Key words : Tangun Wanggum, Crown Prince Bulu, Changsusaja (蒼水使者), Haeburu of Dongbuyeo, Wanggum Chosun